

현대-삼성, 석유화학 물류 차질!

대산단지 2일째 합성수지 운송 차질 ... 자구책 동원해도 역부족

화물연대 충청지부 서부지회 조합원들의 서울 집회 참가로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의 물류가 2일째 차질을 빚고 있다.

대산석유화학단지 입주기업들에 따르면, 8월19일 여의도 집회에 참가했던 화물연대 서부지회 조합원 200여 명이 아직까지 서울에 머문 채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합성수지 등 제품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현대석유화학은 8월20일 자구책으로 외부 운송회사 차량을 동원해 제품 운송에 나섰으나 계획량 4000여톤의 55%인 2200톤 밖에 반출하지 못했으며, 삼성종합화학도 계획량의 60% 수준인 2000여톤을 반출하는 데 그쳤다.

석유화학기업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유보했는데도 조합원들은 아직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업무 거부가 장기화되면 큰 손실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Chemical Journal 2003/08/22>